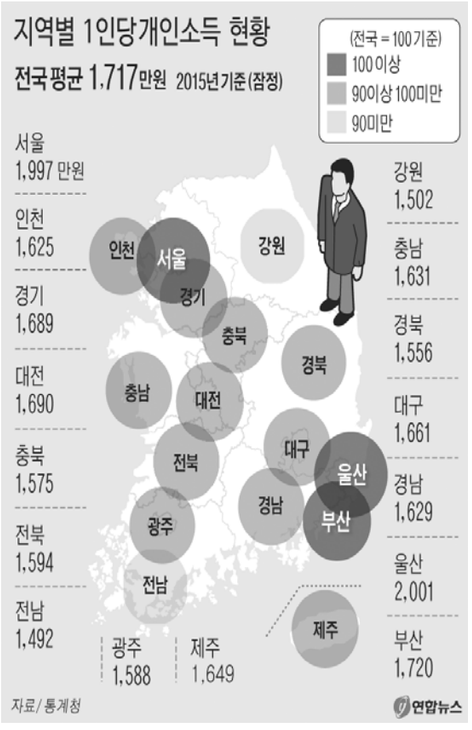
광주 개인소득 1588만원 '광역시 꼴찌'



전남 1492만원 '전국 최하위'

평균 1717만원…울산 2001만원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평균 웃돌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번째, 지역총소득 규모도 세번째로 낮았다. 또 1인당 개인소득도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취약한 경제기반을 여실히 보여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소득(잠정)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564조원으로 전년보다 78조원(5.3%)증가했다. 시도별로 경기가 351조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345조원), 충남(111조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66조원 광주는 3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3.7% 증가했다. 광주 지역 성장 업종으로는 사업서비스업(7.6%), 부동산·임대업(4.4%)인 반면 정보통신업(2.0%),숙박·음식점업(1.5%)은 부진했다.

전남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전기·가스·수도업(13.3%)과 제조업(4.5%)은 성장했으나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해 숙박·음식점업(1.5%), 교육서비스업(1.4%)은 부진했다.

광주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전체의 2.1%에 불과하며 제주(1.0%)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광주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은 3.2% 전남은 5.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6개 시도 전체 지역총소득(명목)은 1571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81조원(5.4%)증가했다. 시도별로 서울이 390조로 가장 컸고, 경기 377조원, 경남 94조원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남은 56조원, 광주는 36조원으로 제주(16조원), 강원(34조)다음으로 낮았다.

광주·전남 모두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고 특히 전남은 15.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의 개인소득은 24조원 전남은 2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개인소득 증가율은 제주(6.8%), 충남(6.8%)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광주가 평균 1588만원으로 광역시 중 중 가장 적었고, 전남은 1492만원을 기록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였다. 울산이 2001만원으로 1997만원인 서울을 제치고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강원(1502만원), 경북(1556만원)도 평균(1717만원)보다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중근 의사 옥중 유묵 진본 공개 28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 씨가 소장했던 안중근의사의 옥중 유묵 진본으로 추정되는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이 공개됐다. 이 문구는 논어 '위령공' 편을 인용한 것으로 '높은 뜻을 가진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라고 숭모회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최저임금 6470원…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

기재부, 2017년부터 적용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9종인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전남 섬 환자 이송 '닥터 헬기' 중형으로 교체

목포서 가거도까지 운행 가능

전남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닥터 헬기가 중형(AW-169)으로 교체돼 전남 모든 섬 지역을 운항한다. 지난 2011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닥터 헬기는 소형(EC135)이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으로부터 반경 100㎞ 이내 246개 섬을 운항하면서 1천107명 환자를 이송했다.

교체된 헬기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목포 한국병원에서 145㎞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연간 운영비는 기존보다 10억원 늘어난 40억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층 음식점·숙박시설·15층 공동주택 책임보험 의무화

내년 1월 8일부터는 1층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8일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두 협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층의 음식점 등을 포함한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저축성보험의 상품개발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보장 기간동안 환급률 100%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간)에 원금을 보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7년 납입 이후에는 금리 상황 등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4월에는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리점은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고,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비축 쌀 저소득층에 90% 싸게 공급

정부가 저소득층에 정부비축 쌀을 더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정부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 할인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1포(10㎏, 20㎏)당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90%로 높아진다.

매달 40㎏으로 한정됐던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 제한조치도 없애 가구원 1인당 매월 10㎏씩을 살 수 있게 했다. 이로써 5인 가구는 월 50㎏, 6인 가구는 월 60㎏을 구매할 수 있다. 그간 1인 가구만 연중 구입할 수 있던 10㎏ 포장단위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들 극빈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해왔으나 2015년 7월부터 각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연합뉴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피(뽕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삼가 인사 드립니다.

금번 제 배우자(故 李梅實) 상중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크신 애정과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황망중에 알려 드리지 못해 조문하지 못한 지인들께는 혜량을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남 편 강 인 규 나주시장
아 들 강 용 성 자부 지 해 나
딸 강 나 루 拜上